

중동 지역의 세계관과 동맹


인 남 식
외교안보연구원

2009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중동 지역의 세계관과 동맹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I. 서론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만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 ‘체질적인 불안정성’(inherent quality of instability)이라는 표현이 상용될 만큼 고질적인 분쟁 구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전후 식민체제가 해체되면서 독립을 성취했던 국가의 상당수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부족단위의 유목문화 전통(nomadic tradition)을 유지하고 있는 아라비아반도, 레반트 지역 및 마그레브 지역에 인위적으로 국경이 만들어지고 국가 단위의 정치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는 5세기 넘도록 오토만 제국의 속주에 편입되어 정치와 유리되어 살던 중동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생경한 형태의 정치공동체였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자율성은 취약한 상황이 유지되었다. 이에 식민체제의 재편과 맞물려 중동지역 내에서의 국가 건설, 체제형성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외삽적 요인은 역내 신생국 내정에 영향을 미쳐 정치 불안을 가중시켰다. 냉전체제 하에서의 중동의 지정학적 의미와 석유자원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 원인이다.

이러한 외삽적 요인과 더불어 중동지역 내부의 문제 역시 지역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혼재하는 종파, 종족 갈등 및 역사적 분쟁 요인이 중첩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중동내부분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족주의, 이슬람 및 지대추구행태 등의 문화, 정치, 종교 및 경제 요인이 결합되면서 좀처럼 안정화 기조가 정착되지 못했다. 정체성에 기반한 동맹 구도는 양면적이다. 내부 결속과 연대를 구성함과 동시에 ‘타자화’ 및 ‘배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연 및 민족 그리고 종교 정체성이 선명하고 강한 중동에 있어서 정체성 기반 동맹구도는 그만큼 배타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질적 사회갈등구도를 창출한다 (Ramsbottom 2005).



상기 내외 요인으로 인하여 반세기 이상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중동 지역은 동맹과 연대의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냉전 초반에는 동서 진영론으로 인한 갈등이 반영되어 과거 식민모국과의 긴장 속에서도 바그다드 조약(Baghdad pact) 등의 냉전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외부 세력과 중동지역 국가 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중동지역은 ‘아랍 대의’ Arab cause에 입각한 정치적 결속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아랍 민족주의로 승화되면서 이념적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민족, 문화적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냉전의 붕괴는 중동에서 새로운 동학과 지형을 배태했다. 대척점에 서서 반세기의 갈등 구조를 형성해 온 이념의 틀이 무너지면서 21세기 새로운 갈등구도에 관한 성찰들이 제기되었다. 중동지역과 관련하여 여타 지역과는 달리 문명담론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헌팅턴의 테제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후쿠야마의 세계관이 미국 및 서방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수면 하에 잠복해 있던 ‘이슬람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치화하기 시작했다. 9.11로 인해 반테러·비확산 노선이 가시화되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중동의 정치지형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란이 부상하고, 이란 이슬람 혁명노선에 동참하는 국가와 정치단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동지역에 편만한 반미 정서는 테러리즘의 확산을 추동하였으나 이슬람 테러리즘의 핵심인 알 카에다 류와의 연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주도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연대가 힘을 얻고 있다.

이란의 부상과 시아 연대(Shiite coalition)의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 구도가 출현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화공동체에 입각한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한 후, 이념적 공백상태에 있었던 중동지역에 초월적 가치에 입각한 이슬람 동맹이 등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걸프왕정 및 세속주의 공화정을 중심으로 한 순니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의 긴장이 높아지며 이란 및 시아 연합에 대한 일종의 ‘대응 동맹’ 구도의 출현도 감지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출현은 이러한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고전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연대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이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중동지역의 동맹과 연대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정체성의 층위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지배이념의 변화를 추적한다. ‘아랍’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는 추이 자체를 최근 중동 동맹질서 변화의 배경 변수로 판단한다. 최근 중동지역 내 일반적 정치현상으로 포착되는 이슬람 부흥운동과 맞물린 정치적 연대 결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전반적 정치지형을 파악하려 한다. 더불어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일방주의 정책에 맞섰던 이슬람 부흥운동이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중동정책에 어떻게 조응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한다.



II. 중동지역 동맹의 기본 요소: 정체성의 층위²

동맹의 아랍어 단어는 ‘알 무와하드’الموحد · al-Muwahḥad 이다. 이는 ‘와하다’ 동사에서 발원하는데 ‘하나가 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슬람적 사상과 연결되는 바, 이슬람 정치의 최고 덕목인 ‘타ḥīd’ توحيد · tawhīd 사상, 즉 만물의 합일 사상 doctrine of oneness 와 연동된다. 즉 중동에서의 동맹이란 공동의 이익 창출, 또는 현재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는 일종의 영속적인 공동운명체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 따라서 무와하드로서의 동맹은 일종의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귀속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집트와 이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현 중동 국가들은 양차대전 전후와 맞물려 세워졌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정체성외에도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 구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음 4 가지의 개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귀속의식이 형상화된 정체성 identity 개념이다. 이를 통해 동맹과 연대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동인이 된다.

1. 아싸비야 (assabiyyah, 부족 정체성)

아싸비야는 부족적 전통에 대한 귀속을 의미한다. 혈연적 유대관계는 여하한 형태의 정치적 연대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다. 고래로 부족적 집단생활의 전통이 강했던 아랍지역은 자신이 속한 부족의 위계질서에 대한 귀속감은 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되어왔다. 특별히 사막지역의 유목생활전통nomadic tradition은 오아시스를 중심한 작은 형태의 수장국가shaikhdom군을 형성했고, 이에 대한 귀속의식을 바탕으로 아랍인들의 의식속에 녹아져있는 아이덴티티이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할둔 Ibn Khaldun은 그의 저작 「역사서설」 al Muqaddimah - An Introduction to History에서 아랍지역의 역사발전이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 바로 아싸비야 집단 의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의식을 통하여 외부 부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여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연대의식이 확대 승화하여 이 지역의 공고한 정치체제로 자리잡게 된다고 보았다 (Khaldun 1967).

부족적 전통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아싸비야 정체성에 근거한 국가건설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시한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흐레인 및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걸프왕정국가들이 대표적인 아싸비야 정체성 준거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국민 국가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국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족이 확장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법률체계와 세속적 가치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와 충돌할 경



우, 부족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2. 와따니아 (wataniyyah, 국가 정체성)

와따니아 개념은 일종의 국민국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부족개념에 의한 국가개념을 초월하여, 근대적 국가개념에 설립된 통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국가정치체제에 관한 귀속의식을 의미한다. 특별히 세속적 정치체제가 집권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민족의식, 즉 이집트나,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경우가 바로 와따니아에 근거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른바 녹색혁명을 주창하며 리비아의 우월적 민족주의를 선도했던 무함마르 까다피의 리비아 민족주의나, 낫셀 사후 안와르 알 사다트의 이집트 민족주의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³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동서 양진영은 중동내 이러한 와따니아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체제, 즉 근대 국가들과의 세력 연대에 나섰다. 이러한 세력 경쟁 구도에서 왕정 세력은 여전히 식민 모국과의 밀접한 연대가 이어지며 친 서방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반대로 혁명 공화정 세력은 반 식민주의 정서가 강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등장한 친 소비에트 노선으로 경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랍대이가 편만화되면서 이러한 혁명공화정 친 소비에트 노선은 결국 비동맹을 표방하며 독자적 아랍민족주의 노선으로 귀결되었다.

3. 까우미야 (qawmiyyah, 문화 / 민족 정체성)

까우미야는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아랍’ 전체와 연관된 연대의식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특정 부족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아랍대의Arab Cause’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체의식으로 자리잡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아랍민족주의를 언급할 때 있어 일반적으로 이 까우미야 정체성에 근거한다. 아싸비야가 혈연과 부족의 연대의식에 기초하고 있고, 와따니아가 독립된 개별국가의 영토적 의미에서 성립되는 반면, 까우미야는 ‘아랍’이라고 하는 언어적, 문화적 동일성에 귀속되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랍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다. 사티 알 후스리 Sati al-Husri는 확대된 아랍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 범주를 제시하였다.

아랍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랍인이다. 아랍인들과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 역시 아랍



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랍에 관한 연대의식이 없거나, 아라비즘에 관한 애착이 없을 경우,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무지한지를 밝혀내어야 하며, 그의 무지가 우리의 게으름때문으로 밝혀졌을 경우 우리는 그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아랍의식이 심어지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랍 귀속의식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그의 이기심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의 아랍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의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Cleveland 1971, 127).

후스리의 개념정의를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아랍은 생래적으로 결정되는 혈통적 1차 집단 정체성이 아니라 언어적 정체성에 기초하는 후천적 정체성이라는 점, 따라서 아랍의식에 동의하고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랍 까우미야에 소속될 수 있다고 하는 개방적인 의미의 아랍의식을 설파하고 있다. 사실상 까우미야는 1차대전 이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개념이었다. 그 시기까지는 와파니야 민족주의 성향이 주류였다. 특히 무함마드 알리부터 파루크 정권에 이르는 이집트 왕정은 아랍 의식과는 상관없는 전형적인 이집트 중심의 민족주의 성향국가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선언과 함께 팔레스타인 전쟁을 겪으면서 아랍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낫셀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까우미야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유산을 극복하고 변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랍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로 구성되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4. 움마 (ummah, 종교 정체성)

위의 세 정체성 요소가 부족적, 언어-인종적 개념에서 발원했다면, 움마(ummah) 정체성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에 그 근원을 둔다. 이슬람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움마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 절대다수가 무슬림인 아랍인들에게 이 움마 공동체는 명실상부한 이상적 개념으로서의 궁극적 공동체가 된다. 뒤에 언급할 이슬람 부흥운동의 정체성 기반은 이 움마 공동체의 확장이며, 신성한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체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영역(Dar al-Islam) 개념과 전쟁의 영역(Dar al-Harb) 개념의 대립구도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Mandaville 2009, 173). 즉 움마 공동체의 건설이 되어 있고 알라의 신성한 가르침에 의한 신정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다름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슬람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영역을 다름 하브라고 하여 선교(dawa)와 투쟁(jihad)의 대상이 된다.

낫셀이 주창했던 아랍대의에 의한 지역통합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랍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의를 대치할만한 공동체 개념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움마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은 자연스럽게 아랍인들의 제1관심사로 부상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정체성의 층위는 ‘세력 균형’ 또는 ‘위협의 균형’ 등으로부터 발원하는 고전적 동맹 이론에서 포착하지 않는 부분에 천착한다. 즉 국가 이익의 매트릭스 위에서 결정되는 현실 주의적 역학관계 외에도 문화적, 인식론적 변수들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중동 내 지배이념과 동맹의 변화: ‘아랍’통합에서 ‘이슬람’동맹으로

1. 냉전기 ‘와파니아’ 동맹: 중동조약기구 (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 Baghdad Pact)

한국전쟁 종전 이후 냉전이 고착화되면서 서방은 소비에트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전략을 추진했다. 원유 밀집 생산지역인 중동지역에서의 소비에트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 안보체가 설립되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본부를 둔 중동조약기구이다. 바그다드 조약으로 불리우는 중동조약기구의 시발점은 1955년 이라크와 터키 간 상호방위조약이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이란, 파키스탄, 영국이 가입하면서 중동 산유지역을 막아내는 데 소비에트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파키스탄부터 이란, 이라크를 거쳐 터키에 이르는 연계선은 소비에트의 걸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철벽이었다. 이는 근대 국가의 양태를 갖추고 있는 중동 내 주요 국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와파니아’ (근대국민국가정체성) 에 기초한 연대로 분석할 수 있다.

중동조약기구는 출범 초기 전형적인 냉전 시대의 방위동맹이었다. 즉 소비에트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왕정국가들과 친서방 공화정 정권이 영국의 주도로 결성한 다자안보 동맹이었다. 초기에는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던 미국이 실질적으로 본 동맹의 조직과 결성의 산파역을 맡았다. 그러나 1958년 이라크의 압둘 카림 카셈이 이끄는 군부에 의해 이라크는 군사혁명 공화정이 세워졌고, 곧바로 본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조약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본 조약기구를 포괄적인 다자체제로 전환시켰고 이는 곧 중부조약기구(Central Treaty Organization, CENTO)의 설립을 의미한다.

중동조약기구 및 이로부터 발원한 중부조약기구는 모두 전형적인 냉전 진영론의 산물이다. 친서방 중동 정권들은 어떻게 해서든 서방 진영의 공고한 지원을 받아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을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반이슬람적, 반문명적으로 인식하고 반소비에트 노선에 동참했다.⁴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중동지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체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랍권내에 열풍처럼 전개된 군사혁명으로 인해 중부조약기구의 영향력은 극대화 되지 못했다. 더욱이 이라크의 탈퇴 및 친소 노선은 본 조약의 취약성을 가증시켰다. 본 조약의 근원적 한계는 집권세력과 대중들 사이에 노정된 인식의 간극이었다. 기본적으로 중동 각국의 일반 대중들은 영국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들은 영국을 과거 식민 제국이자, 이중노선을 취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한 반아랍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에트의 위협과 유물론 사상의 유포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한다하더라도 역사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표출되면서 대중들은 자신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거부감을 표출 하게 된다.⁵ 이에 중동 아랍 대중들의 관심은 이러한 진영론의 한 전위대로서의 결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식과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 즉 까우미야 아랍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기 시작했다. 즉 아랍 대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연합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빈 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발발과 함께 본 조약은 해체되고 만다. 이후 걸프 지역의 친미, 친서방 기조는 점차 와해되어 오다 부시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아랍민족주의의 ‘까우미야’ 동맹 : 통일 아랍 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와파니야 정체성에 근거한 중동조약기구는 이라크의 탈퇴 이후 약화 일로를 걷다 해체되었다. 중동 아랍 대중들에게는 국가단위의 위기 결속 및 국가이익의 증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경했다. 오토만 속주를 500년 이상 경험했고, 또한 유목 부족전통에 익숙했던 베두인 문화가 우세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오토만에 이은 서구 식민제국의 침탈에 대한 의식이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결의 기제가 요구되었다. 바로 까우미야에 기초한, 즉 언어-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아랍 대의’였다.

본 아랍민족주의는 사실상 대 유럽 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하던 저항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식민주의의 폐해인 저개발과 착취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저항이 존재했고 이 저항의 동력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아랍 정체성이었다. 아랍민족주의의 출발점은 중동지역 대중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모순해결 방법론^a pseudo-resolution of the problems이었다 (James and Leiden 1984, 292).

중동에서의 민족주의는 초기단계부터 범아랍주의Pan Arabism을 기치로 태동한 것은 아니다. 중동 아랍에서의 민족주의는 앞 장에서 살펴 본 정체성의 층위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싸비야 - 와파니야 - 까우미야의 단계를 거치면서 범아랍주의로 귀결되었다. 초기



반오토만 반란을 일으켰던 아라비아반도 서부 히자즈Hejaz지방의 하심 家The Hashimite 중심의 부족주의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범아랍주의로 확대되었던 것이다(James and Leiden 1984, 293-295).

범 아랍 동맹의 골간은 낫세리즘Nasserism과 바티즘Baathism이다. 낫세리즘이 토착 아랍에 기반한 민족 연대 운동이라면, 바티즘은 프랑스 혁명사상으로부터 지적세례를 받은 서구 유학생 출신의 크리스찬 아랍들이 주도하였다. 양자 모두 아랍에 기초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궁극적으로 아랍의 연대에서 더 나아가 단일 아랍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치통합의 비전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같은 언어와 인종이라는 동질감 뿐만아니라, 식민주의의 압제를 함께 경험했다는 동료의식이 확산되면서 아랍의 대의에 입각한 동맹은 곧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아랍 동맹은 아랍의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오직 아랍의 단결만이 서구 제국주의 및 소비에트의 침탈로부터 아랍 지켜낼 수 있다는 신념을 홍보했다. 동시에 외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뿐만아니라, 아랍의 이익에 반하는 아랍 내부의 괴뢰 정치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랍의 통합이라는 명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를 추구했던 서구의 아랍개입 원천 차단 및 소비에트의 영향력 확대 방지, 둘째, 아랍대의 를 가로막고 있는 서구의 꼭두각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아랍 독립의 정치체제 수립이라는 의미이다.⁶

낫셀은 범아랍주의 통합운동주의자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까우미야 정체성을 중심으로 거대한 아랍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Sharabi 1990, 308). 그는 혁명 직후부터 아랍통합운동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랍의 통합을 향한 이러한 열정은 낫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Hudson 1977, 239). 낫셀은 미셸 아플락Michel Aflaq의 거대한 아랍통합이론⁷을 수용하면서 바티즘의 통합을 자신의 통합논리로 흡수한다.

1958년을 전후하여 바티즘의 주요 근거지인 시리아의 국내정국이 혼미해지면서 바트당이 분열되었다. 한편 소비에트의 아랍진출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위협을 느낀 바트당은 낫셀과의 통합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통일아랍공화국이 태동하게 되었다. 낫셀은 바트와의 통합조건으로 바트당의 해체와 단일 국민정당인 국민연합national union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관철되었다. 이와같은 바트당의 해체는 훗날 낫세리즘이 아랍민족주의의 대표적 이념으로 자리잡게되는 독점적 위치를 제공하게 된다 (로맹송 1991, 107).

산고 끝에 탄생한 통일이랍공화국은 결국 낫셀과 바트 잔여 세력간의 알력⁸으로 갈등을 거듭하다 1961년에 해체되고 다시 와파니야의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와중에 아랍통합의 당위론과 운명적 성취를 주장하던 낫셀의 통합운동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계속해서 낫셀은 여



러 형태의 통합운동을 시도하나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 이는 낯세리즘의 명시적인 선언인 “궁극적 아랍통합”의 실패를 노출한 것으로 비추어지면서 낯세리즘의 가장 중요한 선전 수단에 있어서의 상흔으로 남게 된다. 결국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동맹 및 정치 연합의 비전은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⁹

3. 냉전 해체와 9.11이후 ‘움마’ 동맹 :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흥

까우미야에 기반한 아랍 통합은 통일아랍공화국의 해체와 함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언필칭 하나의 아랍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조차 조율하지 못한다는 패배의식이 비등하게 되었다. 지배이념이 약화되자, 아랍대중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새로운 이념을 희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환이념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랍 대의를 대치하면서도 아랍의 영화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은 바로 이슬람, 즉 움마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라는 논의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실상 아랍민족주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 중동에는 다음 단계의 중동정치를 기약하는 두 방향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부상하였다. 하나는 서구의 근대화 노선을 추수하여 아예 중동의 체질 자체를 근대화하여야 한다는 발전주의 논리였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이슬람화를 주장하는 논리였다. 근대화주의자의 경우 기존의 아랍 민족주의는 통합에 실패했지만 아랍민족주의가 추구하던 세속적 가치와 공화주의를 지속시켜야 하며 개별국가의 아랍화를 강화하여 느슨한 유대를 유지하며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면에 이슬람주의의 입장은 이슬람 단일 원리Tawhid에 의거하여 더 이상 특정민족을 중시하는 아랍중심의 논리전개는 무의미하며, 국가와 민족에 상관없이 이슬람의 원리가 구현되는 본질적 이슬람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랍 대의’에 대한 실망감이 이미 임계점을 지난 상황이고 더욱이 낯셀과 같은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화, 서구화를 이끌어갈 동력 자체가 없었다. 결국 이슬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대세를 이룬 셈이다 (Faksh 1993, 425-438).

이슬람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Islam의 움직임은 오토만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강령과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치제도화는 아니었다. 이슬람 법학과 중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이 각별한 세력을 중심으로 범 이슬람권의 단결과 일치통한 반서구 운동을 강조하는 선이었다. 그러나 1978년 이란의 팔레비 샤가 이러한 이슬람 운동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백색혁명’White revolution을 선포하고 이슬람 세력을 와해시키려 하면서 강력한 반발 구도속에서 이슬람의 정치화가 가시화되었다. 결국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고, 이슬람 성법에 의해 국가가 지배되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Velayat-i-faqih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중동 지역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이란은 이민족(페르시아 민족) 이고 종파도 시아파이지만 성직자들이 주도한 혁명에 의해 이슬람을 국시로 하는 국가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중동 아랍 제국의 대중들은 동요되기 시작했다. 이란 혁명을 기점으로 아랍에 기반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서구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 등의 세속주의 이데올로기외의 새로운 대안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맺어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간 수교가 선포되자 아랍 대중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아랍 민족주의를 이끌던 이집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결국 아랍대회는 사그러들었으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환 이념인 ‘이슬람 주의’로 대중들의 이목은 집중되었다.

이슬람에 근거한 연대는 크게 두 노선으로 나뉜다. 하나는 순니와 시아파 양대 종파의 대표 국가가 주도하는 종파별 연대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은 이슬람 저항운동세력의 연대이다. 전술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이슬람 혁명 수출 노선에 입각한 시아 동맹이 대표적인 종파별 연대이며, 같은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도하는 순니 이슬람 국가간의 협력 구상도 추진되고 있다. 이슬람 저항운동세력의 연대는 국가, 지역 단위의 자생적 저항조직이 연대 결성을 통해 투쟁효과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명분으로 설명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슬림 형제단 및 알 카에다이며, 현재 이슬람 국제테러리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IV. 21세기 중동지역 동맹구도와 정치 질서

1. 이란의 부상과 시아 동맹의 가시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변화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란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시아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대의 shiite cause를 내걸어 온 바, 그동안 이를 견제하는 인근 순니 아랍국과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이란 동편 순니 원리주의 정권이 무너졌다. 이어서 2003년 5월 고전적인 갈등관계이자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었다. 양 국가의 정치변동은 곧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연결되었다 (Nasr 2006).

특히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¹⁰ Ayatollah Ali al Sistani가 이끄는 이라크 시아파는 과거 사담 휘하의 바트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아파 정치사상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연계를 갖게 된다. 즉 미군의 주둔이라는 현실 제약은 존재했지만 결국 2010년까



지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라크 내 이란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부상과 시아파 연대의 확산은 에너지 안보와 연결된 걸프지역 안정화와 이스라엘 안전보장이라는 미국 대중동정책의 양대 목표와 정면으로 상충된다. 먼저 걸프지역의 경우 현재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 6개국 중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시아파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 연안지역인 알 하싸(Al Hassah) 지역에 시아파 사우디 국민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는 걸프 연안을 둘러싸고 이란·이라크·쿠웨이트·바레인 및 사우디 동부 알 하싸를 연결하는 시아파 연결구도를 보여준다. 걸프해를 둘러싸고 말발굽 모양으로 시아파 연계가 구축되고 있어서 이 현상을 ‘시아 편자지대화’(Shiite horseshoe area)라 부르기도 한다. 걸프 연안의 시아파 연계 현상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과 연결되며, 시아 종주국으로서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구체화될 경우 걸프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제품유의 국제시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스라엘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이란의 부상과 시아 연대의 강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란 대통령의 이스라엘 존립 부정 발언 및 핵개발과 맞물려 이스라엘내 대 이란 안보위협 인식은 증대되고 있다. 이란의 핵무장이 가시화되고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이란 정권이 존재할 경우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지역으로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 지대’(Shiite Crescent)의 가시화는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¹¹

이란 영향력의 양대 투사 현상, 즉 시아 편자 지대화 및 시아 초승달 지역의 가시화는 결국 미국 대중동정책의 사활적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확대의 필수적인 요건은 ‘이라크의 친 이란화’이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가 비록 친미 노선을 견지해왔지만, 철군 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이란은 미국의 공백상태가 가시화될 경우 이라크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2. 순니 반시아 동맹 구상 (Middle East Anti-Terrorism Organization, MATO)

이란 시아 연대의 가시화는 순니 반시아 동맹 구상의 단초를 열었다. 사실상 중동지역내 순니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혁명을 주장하며 이의 전파(dissemination)를 국시로 하는 이란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Rubin 2002, 70-95). 최근 이란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자 사우디를 비롯한 인근 순니 왕정국가 및 이집트 등의 권위주의 공화정 국가들은 실질적인 이란발 위협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에 부시 행정부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제안으로 이란을 봉쇄하기 위한 순니



의 연대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란을 고립화하는 목적으로 연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인남식 2008, 7). 현재 구체적인 수준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란에 대한 견제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순니 국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GCC 왕정 국가군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강령과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Furtig 2007).

다만 순니 국가 내부의 반미, 반서구 정서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 시아 구상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으므로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형태의 반 시아 연대를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3. 미국의 대 중동 동맹구상 : 확대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과 임팩트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이라크 전쟁의 3대 명분 중 ‘민주화’에 집중하여 중동 전역에 걸친 민주화 이식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라크 민주주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의 양대 축은 ‘민주주의의 이라크 직접 이식’과 ‘이식된 이라크 민주주의의 중동지역 확산’ 개념이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만연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영감을 수용한다. 즉 중동의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라크 민주주의를 조속히 확립하고, 이를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이 ‘확대중동구상’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인 2002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11개국의 민주화 추진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는 냉전기 미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 왕정들과 이집트 등 친미 공화정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구축은 난망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존의 냉전 관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 동맹을 중동에 구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구상을 추진하였다.

200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Sea Island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공식 천명된 본 구상은 중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민주화와 현대화를 지향하는 개혁 노선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하여 11개 주요 국가를 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시켜 견고한 평화구축의 보루로 삼는다는 목표가 피력되었다. 이를 위해 중동 미래 포럼, 중동 민주화 지원 그룹, 중동 민주주의 재단, 중동 교육 지원본부 그리고 중동에서의 G8 금융 구상 등 모두 5개의 지원 그룹으로 구성되는 민주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정치 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구상이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미국은 이를 위해 선거 및 정당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 NGO 지원을 위한 재원 및 민주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금 재원 등 연간 10억 3천 800만 달러



의 자금지원을 확정했다 (Wittes 2004).

본 구상이 미 국무부에 의해 발표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왕정국가들 및 이집트 등 고전적 친미 동맹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별히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故 파드 국왕 및 압달라 당시 왕세제 (현 국왕) 등 왕실 핵심인물들은 왕위 승계에 영향을 미칠 본 구상에 관하여 내정 간섭이라 비난했다. 왕정 국가에서 민주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정권의 안위에 심각한 타격이 되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의 경우 대미 안보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순니 이슬람의 중심국가, 그리고 대미 채권국이기엔 지속적인 민주화 압박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친미 공화정 국가인 이집트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미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집트는 2005년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 복수 출마를 허용했고,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후보 자격제한을 완화했다. 이집트를 필두로 중동 전역에서 선거 열풍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보통, 비밀, 자유선거 원칙에 따라 각국의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이슬람 정치세력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즉 국민 단순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미국이 의도했던 다원주의적, 세속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집트 총선에서 중동지역 최대 과격투쟁 집단인 무슬림 형제단 Muslim Brotherhood, al Ikhwan al Muslimin이 약진하며 미국과 서방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일련의 선거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주의자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미국의 확대중동구상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된다.

‘가치의 공유’를 통한 민주주의 연대와, 이에 기반한 동맹을 구성하여 역내 안정화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희망은 사라졌다.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여, 권위주의 왕정과 공화정의 세습체제에 대한 인정을 통한 고전적 동맹관계 회복이라는 수순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가치 및 이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오히려 양대 이슬람 신정주의 세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중동 접근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지난 30년동안 대척점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동시에 고전적인 동맹관계였던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생산하게 되었다.

4.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동 전략

(1)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론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팀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아버지 부시, 클린턴 행정부 및 브루킹스 연구소의 기초와 동일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통적



으로 비교적 유화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군사조치를 최소화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즉 지난 부시 행정부가 견지해왔던 강력한 ‘부시 독트린’¹²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프트파워 또는 스마트파워 외교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초국가적 지위를 누리는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대신 다자주의적 외교전략의 강조를 의미한다. 유럽, 나토, 여타 서방 민주국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노선에 대한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대외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엔을 중심적인 행위자로 인정하고 고려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전 라이스Susan Elisabeth Rice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면서 유엔 중시 외교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라이스 유엔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대외정책을 조언하는 최측근 인사이다. 이는 미국의 유엔 관련 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예견하게 하며 어느 전 행정부보다도 친 유엔 외교 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테러와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카터 및 클린턴 행정부와 같은 시각에서 테러 대처를 위한 일방주의적 군사조치 대신 국제법규와 규범확립 및 제도화와 같은 다자주의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핵심적 제안사항이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접근법이기도 하거니와, 오바마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성장배경과 세계관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평화를 희구하는 이들에게 오바마 행정부 등장은 많은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전임 부시 대통령이 9.11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흔에서 기인한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중동 특사로 임명된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은 이스라엘 방문에서 기존 특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어떠한 정치적 공감대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대 사회를 긴장시켰다.

사실상 미국내에서 지금까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6년 3월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와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며John Mearsheimer는 미국의 친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Mearsheimer and Walt 2007). 국제정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논쟁을 제기하면서 두 교수들은 미국 자국이 아닌 특정국 이스라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기꺼이 제쳐두는 상황에 관해 매우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사실상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이 중동지역이므로 미국의 대중동외교는 명실상부한 국제정치 역학관계 형성의 주요 독립변수가 된다. 그렇기에 불편 부당하고 중립적인 외교적 행보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친 이스라엘 일방기조로 말미암아 중동외교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안정기조로 접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가 이끌어낸 대테러전의



논리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 변화가 심각하게 논의되지는 못했으나, 당시 일부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향후 아랍, 이슬람권을 위무하고 미국의 중재 입지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슬람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는 대외 관계에 관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이슬람 세계에 관한 언급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이슬람 국가에 보다 전향적으로 다가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미디어 인터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언론사인 알 아라비야(Al Arabiyah)라는 점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이슬람권 외교의 새로운 전환을 암시했다.¹³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의 신년 명절인 노루즈 연설을 통해 이슬람 혁명 발발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란 국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이다.¹⁴ 여기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 카이로 대학 연설(Obama 2009c), 모스크바 경제대학원 연설 등을 통해 기존의 부시 행정부와는 판이한 성격의 대 중동, 대 이슬람권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2) 오바마 행정부 대 중동정책 관련 주요 인사

특정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최고통치권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 표명의 방향과 또한 대외정책 관련 주요 포스트의 인사배치 현황이다. 2009 상반기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및 이란 문제 등 주요 중동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바 없다. 특사들의 중동순방과 검토(reviewing) 과정을 통해 탐색과정(probationary period)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원칙론적 입장에서 평화 희구의 메시지를 언급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장기 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감지하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대외정책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배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 내에서의 유대인의 영향력과 현 정치 지형에서의 친 이스라엘 기조를 뒤바꿀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램 엠마누엘(Ram Israel Emanuel)이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동문제를 조언하는 데니스 로스(Dennis Ross) 및 대니얼 커처(Daniel Kurtzer) 전 이스라엘 대사 등은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파 인사들이다. 이들의 면면으로 볼 때 정책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예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문제를 보좌하는 지근거리의 친 유대계 인사들을 배치하되 공식적인 정책 라인에는 중립적 인사 및 친 아랍계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균형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대 사회의 반발은 작지 않다. 특히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던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전 사우디 주재 미국대사가 유대인 로비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시온주의자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를 지낸 딕 에메이(Dick Army)



의원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무부의 대외정책 상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공언할만큼 친 이스라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비공식 라인과 외곽 라인에는 중도파 인사들을 포진시키며 일종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가장 가까운 보좌역을 맡고 있는 앤서니레이크Anthony Lake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대테러전을 펼치는 데 있어 명백한 증거 없이는 어떠한 사전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테러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대테러 책임자로 임명된 다니엘 벤자민Daniel Benjamin 역시 테러리즘 대처에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 온 비둘기파의 대표적 인사이다. 무엇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제임스 존스James Jones는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선대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의 시각을 추종하여 유럽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몇 안되는 핵심 인사 중 하나였다. 또한 법무 장관으로 임명된 에릭 홀더Eric Holder 역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법무차관을 역임하며 테러주의자들에 대한 법적 관용을 베풀어야하고 테러리즘이 발호할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는 바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극적인 정책기조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일방주의적 행태로부터는 다소 변화하여 백악관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늑앙스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 지난 부시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정책 자체가 가져다 준 파장을 고려 아랍권의 이해를 구하는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009년 3월 4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문 시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구의 주택을 무차별 파괴하는 사실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으며, 이스라엘측은 미국이 동 문제에 관해 균형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클린턴 장관은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중동평화 4자회담에서 약속된 이행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으며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가자지구 재건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양자 모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Clinton 2009).

(3)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진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인지적 동맹’ 관계cognitive alliance를 맺고 있다. 이는 구체적 조약이나 문건으로 맺어진 국제법적 효력에 근거하는 동맹이 아니라, 상호 인식론상 불가분의 동맹 협력관계라는 자연적 동맹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유대-기독교 전통Judaean-Christian tradition의 문화적 동질성



에서 기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적인 상황 변화가 도래하지 않는 한 미-이스라엘간 인지적 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 현재 가장 시급한 이슈는 국제문제나 안보가 아니라 국내경제문제이며 금융위기 탈출이라는 지상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현재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조치가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실업증가 및 소비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선순환의 구조로 전환시키는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2010년 중간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중간선거에서 패배시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장악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당분간 국내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경제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1기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제문제는 극적 전환이나 무리 없이 진행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문제의 경우 국제 테러리즘 약화 작전에 유념하면서 미국내 테러발생 방지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중국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고질적 분쟁 상태로 들어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결코 대외정책 최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정치지형상 극단적인 반 이스라엘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며, 현재 지지부진한 폭력상태가 지속되는 가자지구 및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강경진압작전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재조치를 구현할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개인적인 성향상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천명하고 강경한 대 이스라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대 이스라엘 정책전환이나 비판을 용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현재 기조인 사론 구상에 따라 two states solution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달성을 위한 설득과 중재 역할을 지속하되, 부시 행정부와는 뉘앙스가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구도 재편의 형태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인근 아랍 및 중동 주요국가를 연계시켜 협상 타결에 나서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접근, 즉 아나폴리스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안을 미국이 제시하고 나갈지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이는 철저하게 특사의 판단과 백악관 조율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미국 대외정책의 추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여 병력이동과 관련된 쟁점이 압도하고 있어 이팔문제의 구체적인 안건들이 단시일내에 제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분간 이팔문제 관련 4자외교quartet diplomacy에 치중하며 특히 EU의 아젠다 선정에 동의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 쟁점 제시나, 협상의 장 마련이라는 가시적인 행보보다는 정중동의 행보로 이팔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실수를 거울삼아 이팔문제 개입에 있어서 주어진 제약을 의식하여 보다 현명한 접근을 구사하려 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군사원조 및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친이스라엘 행보 포기 등의 실질적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대신, 심리적 측면의 압박과 설득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해 나가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에 관하여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리 극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마스에 대한 협상 주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규정해 왔던 테러리즘 집단의 틀과 기준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원칙적 비판의 각을 유지한 채, 균형접근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뉘앙스를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이란간의 직간접 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거나 최소한 안정적 관계 유지 가능성이 보일 경우, 이란을 통한 하마스 문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하마스와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되,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파타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현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 분쟁 이슈들을 다루어 나가는 방향을 택할 것이다.

(4) 대 이란관계 전망

2009년 6월 12일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부정 논란 및 시민의 선거 무효화 투쟁이 잇따랐지만 최고지도자 그랜드 아야톨라 하메네이Grand Ayatollah Khamenei의 확고한 지지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 대통령의 재선은 향후 이란의 대외 정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핵개발 가속화를 천명하고, 이스라엘의 존립을 부정하는 이란 대통령의 재선은 관계를 개선하여 역내 안정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큰 부담이 된다.

미국이 시도하는 이라크 철군 및 아프간 안정화 작전은 이란의 지원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군 철수 후 치안능력 공백상태에서 자칫 내전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있는 바, 미국으로서는 이란 견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이란을 지속적으로 봉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구상해왔다. 신년 연설을 통해 이란을 위무한 상황도 이와 연결된다.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의 재선을 통해 일정부분 협력기조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란 정치 내부에서는 과거 일방적 신정주의 노선 유지에 관한 회의론이 점점 증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노정되었듯이 이란 내부에 개혁을 희구하는 세력이 구체적인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를 노출하며 시위에 참가했다. 신정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해체를 요구하는 세력은 극소수이지만, 대외 개방을 통해 자신들의 국격을 높이고자 하는 개



혁 개방세력들의 영향력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이란의 전반적인 대미 여론을 보면, 전임 부시 대통령에 비교하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핵개발 협상과 관련 일정 부분 타협 선이 설정되고 대화 국면이 전개될 경우, 미국과 이란간의 이항대립적 관계 역시 일정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다.

V. 결론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중동지역 역학관계에 변화요인이 되었다. 부시 독트린의 도덕적 절대주의에 입각한 반이슬람 정서가 상당부분 희석되었고, 이에 기반한 중동내 대미 여론도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결국 이슬람권과의 대화해를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계획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은 과거 냉전 당시 와타니야 (개별국가) 기반 동맹을 구축하여 소비에트를 봉쇄했다. 이후 낫세르나 바트당에 의해 추진된 아랍대의에 근거한 친 소비에트 까우미야 동맹 (아랍민족주의)을 가까스로 해체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등장한 움마 기반 동맹 (이슬람 정채 연대) 에 대하여는 부시 행정부가 적대적 관계를 설정해 왔던 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은 이를 탈피하여 새로운 동맹 및 협력관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건국 이후 미국과 인지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며 불가분의 공동운명체로 자리잡아 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다. 동시에 혁명 이후 대립과 반목의 구도로부터 탈피하지 못해 온 미-이란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된다. 미국 국내 정치 역학관계를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아랍권을 위무하고 이슬람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수준에서의 대 이스라엘 강경 뉘앙스는 간헐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슬람 신정주의 양대 축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국은 이슬람 가치를 부각시키며 문명간 갈등이 아닌 대타협과 화해라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우디 내부의 반미, 반기독교 세력과 이란 혁명 세력이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의해 향후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노선과 성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주(註)

¹ 중동에 관한 지리적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국제정치상의 지역구분개념에 의해 서구에서는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하여 동방을 극동, 인도, 근동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한편 중근동개념은 구 오토만제국의 영토를 일반화시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넓게는 동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서아프리카의 모로코, 모리타니아, 남북으로 터키에서 아라비아반도 전지역 및 아프리카의 수단까지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할 때 중동개념을 사용한다. 약 1700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26개국이 있고 인구는 6억 (2007년 기준)이다. 중동지역의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국가로 이루어져 있지만, 터키, 이란,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은 아랍민족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민족이다. 본 고에서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아랍이라 지칭하며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² 본 장은 인남식(2004) 내용을 바탕으로 함.

³ 지난 이라크 전쟁후 실각한 사담 후세인 정권 역시 고대 바빌로니아의 영화를 복원하려던 이라크 와파니야를 수사학으로 내걸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담 후세인 정권의 기반은, 그의 출신지역인 바그다드 북부의 티그리트 지역 부족 아싸비야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인 이라크 바트당은 아랍의 통합을 지향하는 까우미야에 기반하는 등, 아랍지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중첩적인 정체성의식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⁴ 사실상 여타 제3세계 국가에 비하여 중동국가들은 냉전 당시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영향력이 비교적 덜 미친 곳으로 분류된다 (Halliday 1997, 16).

⁵ 이러한 권력-대중 간의 인식 괴리 현상은 21세기 중동정치지형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친미 왕정, 공화정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경우 오히려 대중들의 반미, 반서구 정서가 이란이나 시리아보다 더욱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⁶ 아랍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역학과 관련하여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간의 논쟁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현실주의 입장에 선 왈트는 아랍 정체성은 부차적인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각 개별국가의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아랍 대의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Walt 1987). 반면에 바넷은 바로 이러한 아랍 또는 국가 정



체성이 상황 인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전략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Barnett 1998).

⁷ 아플락은 구체적으로 모로코의 대서양연안으로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걸프해역까지의 광범위한 아랍 단일국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Faksh 1993, 426).

⁸ 통합을 논의하는 낫셀과 바트당의 상이한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낫셀의 단일국가론과 바트당측의 연방국가 - 국민투표 - 통합국가 단계론, 둘째 의회구조에 있어서 바트의 양원제 (지역동수대표제인 상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을 제1권력체로 인정, 인구비례대표인 하원은 제2권력체로), 셋째 정당체제에 있어서 낫셀의 초당적인 단일대의정치기구론과 바트당의 다수정당 자유경쟁론 등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Bill 2000, 155-167).

⁹ 사실상 아랍의 대동단결이 붕괴된 사례는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1971년 요르단왕실의 PLO축출, 1975년 레바논 내전시 시리아의 하피즈 알 아사드 대통령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와 연합하여 PLO공격,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역시 낫셀 사후 사다트가 추진했던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집트-이스라엘 국교정상화)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 및 이라크 사태 등 더 이상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낫셀이 주장하는 아랍 통합과 연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남식 2007, 449).

¹⁰ 실제로 이라크 시아파의 정신적 지주인 아야톨라 시스타니는 이란 마샤드 지역 출생이며 어린 시절 이란 시아파 성직자 교육을 받고 자란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보다 시아파 성직서열이 상위이며, 따라서 이란식 법학자 통치체제가 보편적으로 뿌리내릴 경우 시스타니 및 이라크 시아파의 위상은 이란 못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¹¹ 이 경우 이라크 내정과 더불어 이란-시리아 연대 관계의 공고성 역시 주요 변수가 된다 (Goo-darzi 2006, 286-294).



¹² 부시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초월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세계를 이분법적 선악의 세계로 보는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 위협이 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힘의 압도적 우위에 의하여 평화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그리고 안보 아젠다의 다변화 등으로 구성된다.

¹³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독립국가 건설의 시급성과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기존의 미국 대중동정책 기조와는 상이한 노선을 천명했다 (Obama 2009a).

¹⁴ 노루즈 연설을 통해 오바마는 이란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이란이 국제사회에 주요한 일원으로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부시 행정부 당시 악의 축으로 불리던 이란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Obama 2009b).

참고문헌

- 막심 로댕송 · 임재경 역. 1991. 《아랍과 이스라엘의 투쟁》. 서울: 두레출판사.
- 인남식. 2004. “이라크 사태 이후의 중동지역 정치질서 재편: 역내 지배 이데올로기 재편에 관한 연구.” <세계화 시대 제 3 세계의 전략적 위상>.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7. “시리아의 정세현황과 한-시리아 관계 개선 전망.” <변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외교>.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8. “아나폴리스 회의 이후 팔레스타인 독립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Barnett, Michael. 1998.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ill, James A. and Carl Leiden. 1984. *Politics in the Middle East*. Boston: Little, Brown & Co.



- Bill, James A. and Robert Springborg. 2000. *Politics in the Middle East*. New York: Longman.
- Cleveland, William. 1971. *The Making of an Arab Nationali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linton, Hillary R. 2009. "Remarks With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america.gov/st/peacesec-english/2009/March/20090304150756idybeekcm0.2406275.html> (검색일 2009. 6. 7).
- Faksh, Mahmud A. 1993. "Withered Arab Nationalism." *Orbis* Vol.37, No.3(Summer): 427-38.
- Furtig, Henner. 2007.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Persian Gulf: The Interregional Order and US policy." *Middle East Journal* Vol.61, No.4:627-640.
- Goodarzi, Jubin. 2006. *Syria and Iran: Diplomatic Alliance and Power Politics in the Middle East*. London: Tauris Academics Studies.
- Halliday, Fred. 1997. "The Middle East, The Great Powers and the Cold War." In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ed. Y. Sayigh and A. Shla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dson, Michael C. 1977. *Arab Politics: The Search for Legitim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haldun, Ibn. 1967.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2nd ed., trans. Franz Rosenthal, Bollingen Series 43, Vol.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daville, Peter. 2009. "Isla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from Ummah to Nations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ed. Louis Fawce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arsheimer, John and Stephen Walt. 2007.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Nasr, Vali. 2006.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Obama Barack H. 2009a. *Al Arabiya News Chanel*.
<http://www.alarabiya.net/articles/2009/01/27/65087.html> (검색일 2009. 5.20).
- _____. 2009b. "A New Year, A New Beginning." White House.
<http://www.whitehouse.gov/nowruz/> (검색일 2009. 5.20).
- _____. 2009c. "The President's Speech in Cairo: A New Beginning." White House.
<http://www.whitehouse.gov/blog/NewBeginning/> (검색일 2009. 5.20).



- Ramsbottom, Oliver. 2005. "The Analysis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A Tribute to Edward Az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1, No.1: 109–126.
- Rubin, Barry. 2002. *The Tragedy of the Middle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rabi, Hisham. 1990. *Theory, Politics and the Arab World*. New York: Routledge.
- Walt, Stephen. 1987.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ttes, Tamara Cofman. 2004. "The New U.S. Proposal for a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An Evaluation." *Saban Center Middle East Memo* No.2.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필자약력

인남식 교수는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겸임교수이며 중동 이슬람 지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인남식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더럼대학 University of Durham에서 중동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외에도 교육방송EBS 영국 통신원, 카이로 알아흐람Al-Ahram 신문사 정치전략연구소Centre For Political Science and Strategic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주요저서는 “국제분쟁의 이해 (2000)”,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과 함의 (2004)” 외 다수가 있고 연구분야는 중동정치 및 테러리즘이다. 최근 저서로는 “자발적 네트워크 테러리즘의 등장과 의미 (2009)”, “파키스탄과 미국의 딜레마(2008)”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